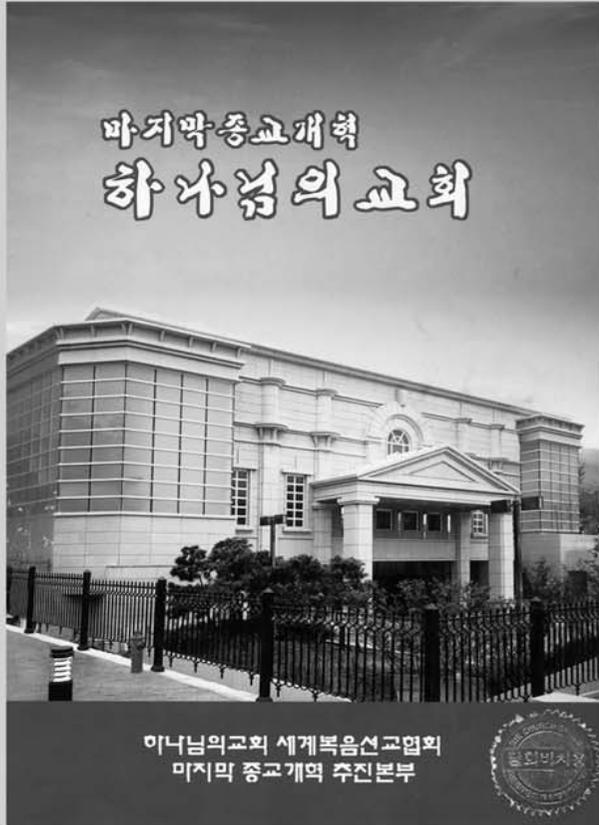


하나님의교회는 '장길자' 증인회!

안상홍씨 친아들 안광섭씨가 말하는 하나님의교회

취재 탁지일 편집장
글 이승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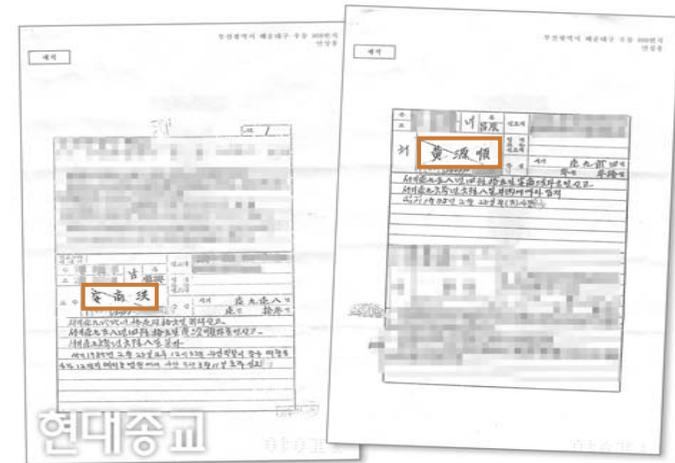
하나님의교회 장길자, 김주철은 안상홍씨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안씨의 친 아들 안광섭씨에 의하면 이 단체는 안씨와 무관한 단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안광섭씨가 말하는 하나님의교회는 어떤 곳인가?

안상홍씨 사후 안씨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교회가 등장했다. 이 단체는 안씨의 부인 장길자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고 있다.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교세를 확장하는 하나님의교회. 그러나 안씨의 가르침과 정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새언약유월절하나님의교회 **새언약교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두 단체는 안상홍씨의 가르침에 정통한다고 주장한다. 본지는 안상홍씨의 친아들이자, 새언약교회

장로인 안광섭씨를 만나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장길자씨는 안상홍씨의 부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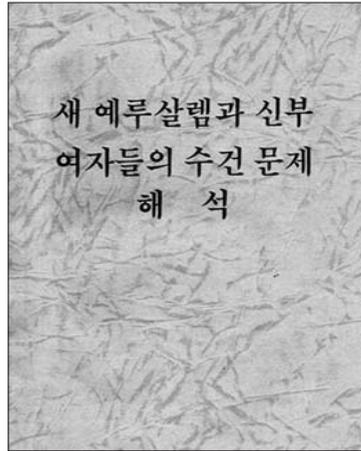
안상홍씨 사후 한 단체가 두 개의 조직으로 갈라졌다. 안상홍씨를 하나님, 장길자씨를 어머니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교회와 기존 교리를 고수한다는 새언약교회가 그것이다. 하나님의교회는 당시 안씨와 장길자씨의 결혼사진을 근거로 장씨



장길자씨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안상홍씨 제적등본



하나님의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장길자씨(좌)와 엄수인씨 신부주장에 대한 안상홍씨의 비판이 담긴 『새 예루살렘과 신부 여자들의 수건 문제 해석』(우)



를 영적 어머니로 선포했다. 본지에 제보된 미국인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미국에서 장씨를 안씨의 첫째 부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안씨의 친아들 안광섭씨는 장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안씨의 제적등본을 근거로 장씨가 안씨의 부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제적등본에는 안씨의 부인은 황원순씨로 “서기 1958년 4월 5일에 안상홍씨와 혼인 신고”했다고 기록돼 있다. 장씨의 이름은 제적등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안광섭씨는 장씨가 첫째 부인이 될 수 없음을 강조, 장씨가 내세운 결혼사진에 대해서도 “그 사진을 처음 봤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장길자씨는 어머니하나님인가?

하나님의교회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남녀 형상이 공존해 있고, 하와는 재림 그리스도인 어린양의 아내를 표상한다고 강조한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늘 예루살렘’이 신부를 뜻한다며, 신부는 안상홍씨가 하나님의 신부로 택한 ‘장길자’씨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안광섭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그는 “어머니하나님은 안상홍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며 과거 안씨 생존 시에도 “엄수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신부임을 자칭해 안상홍 선생님이 이를 비판하기 위해 글을 쓴바 있다.”고 밝혔다. 안광섭씨에 따르면 안씨는 어머니하나님에 대해 가르치



안상홍씨 후계자로 주장하는 김주철씨(좌)와 하나님의교회에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안상홍씨(우)



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저서에 “신부는 요한계시록 21장 9~10절의 예언과 같이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곧 144,000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주철씨는 안상홍씨의 후계자인가?

하나님의교회는 안씨가 죽기 직전 김주철씨 **하나님의교회 대표**에게 대례복을 입혀서 사진을 찍었다며 김씨가 후계자임을 주장한다. 새언약교회는 이 사진의 조작을 의심하고 있다. 설령 사실이라도 사진 한 장만으로 김씨를 후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광섭씨는 “김주철씨가 안 선생님의 후계자로 자처하지만 이는 자기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씨가 대례복을 자기 스스로 입었는지 알 수 없다.”며 “안 선생님이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대례복을 입힌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식적으로 김씨가 안씨에게 후계자로 임명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안상홍씨는 구원자인가?

새언약교회의 예배 순서는 기성 교회와 큰 차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도 암송한다. 찬송도 개사하지 않은 일반 찬송가를 부른다. 안식교와 마찬가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기며 오후 예배는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전국 신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안광섭씨는 “새언약교회는 안 선생님이 계실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며 “안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예배의식이 변화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교회는 자신들 입장에 맞게 예배형식을 바꿨음을 지적,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안 선생님은 잃어버린 진리를 찾아주신 분이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새 언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며, 안 선생님 자신도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씨를 구원자로 믿는다. 하나님의교회 정관 전문에는 “성경의 증거대로 새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안상홍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신부되신 어머니 하나님(장길자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진리를 믿는다.”고 나와 있다.

12월 25일 안상홍씨의 강탄일?

하나님의교회는 정통 교회에서 지키는 크리스마스가 역사적으로 태양신을 기리는 날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그날을 안상홍씨의 탄생을 기념하는 강탄일로 섬긴다. 하나님의교회 한 신도의 인터넷 블로그에는 강탄절에 대한 의미를 서술, “오늘날 기독교 종교에서 예수의 탄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의미 자체가 없다.”며 “하나님의교회 성도들은 안상홍님의 강탄하심을 정확히 알고 지킨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신도의 주장처럼 12월 25일은 안상홍씨의 탄생일인가? 안씨의 제적등본에는 안씨의 주민등록번호가 “180113-○○○



하나님의교회 측 “안상홍님 성탄기념예배” 홍보 현수막

○○○○”으로 나와 있다. 안씨는 ‘1918년 1월 13일’ 전북 장수군 계남면 명덕리에서 태어났다.

144,000에 대한 안상홍씨의 가르침

안상홍씨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에서 구원 받는 사람의 수는 “14만 4천 밖에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새?』에서는 “2012년이 마지막 끝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하면 2012년 종말이 오며 144,000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교회도 안씨의 가르침을 따라 2012년 종말이 올 것을 암암리에 전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의 현재 신도

수는 144,000명을 넘어 섰다. 자체 통계로는 145만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등록 신도 중 10%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안광섭씨는 “우리는 14만4천을 이야기하는데 백몇십만 신도를 자랑하면 사기 아니냐!”며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 선생님이 말하는 근본과 틀리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안 선생님도 2012년 마지막 날을 이야기 하지만 14만4천의 수가 다 차야 한다는 말도 했다. 신도 수 14만4천이 먼저 차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홍씨의 친아들인 안광섭씨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씨와 무관한 단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안씨가 가르친 교리가 왜곡됐고, 그가 제정한 제사법도 변형됐다. 안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씨를 구원자로 믿으며, 나아가 어머니하나님 교리를 만들어 장길자씨를 섬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씨는 자신의 친필저서를 통해 부정하고 있다. 한 하나님의교회 탈퇴 신도는 하나님의교회 포교법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가?”라고 묻는 등 장길자씨를 중심에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씨와 무관한 ‘장길자증인회’라는 것이다.

cccmn@hanmail.net

